

어른들 욕심에 볼모 잡힌 학생 교육권

이홍하 설립 대광·서진여고 몸살

승사 휘말리고 학과 개편 안갯속

사립학교 투명성 보장 입법 시급

최근 불거지고 있는 흥복학원 산하 대광여고(광주 4월 18일·21일 참조)와 서진여고 사태는 사립학교의 부실·독단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법 개정 후속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무슨 죄=대광여고 학생·학부모들은 최근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학생들의 통학로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소송이 진행중인데다, 수 십년간 흥복로 방치되고 있는 학교 앞 옛 서진병

원 건물에 대한 철거 소송까지 이뤄지면서다.

자칫 철거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통학 차질 등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상 '학교는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해당 부지를 사들일 예산도 마련하기 힘든데다, 설립자가 구속되고 임시시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도 관한 밖이다. 학생들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차례 요구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해명도 궁색하다.

◇경쟁력 확보 기회도 놓쳐=서진여고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학과 개편이 설립자인 이홍하(79)씨 반대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진여

고는 여학생 수 급감에 따라 남녀공학으로 바꾸기 위한 '학교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지만 이씨 반대로 부딪혀 보류된 상태다.

올 해 광주지역 여고 입학생은 8922명으로 전년(8921명)에 견주 899명 줄었다. 내년엔 7719명으로 1203명이나 감소한다. 여학생 수를 채울 가능성은 훨씬 어려워진 셈이다.

특성화고 전환도 불투명하다. 당장, 특성화계열학과 중 경영정보과와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지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씨 반대로 학과 개편도 쉽지 않다. 올해도 5개학급 중 4개학급만 운영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경영정보과 대신, 학생들 관심이 많은 호텔외식조리과를 개설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설립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반기 이뤄질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학과 개편 절차를 승인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학교측은 답답해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교육 정책 기본은 독서”

독서 활성화 연구 보고서

‘은밀한 독서’가 아닌, ‘함께 토론하는 독서’ 정책 등 독서를 핵심 교육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학생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날마다 책 읽는 습관적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옥희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학생 독서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광

주시교육청은 수단이 아닌, 목표로서의 독서 정책, 독서의 즐거움과 자발적 독서, 책 읽는 일상 지원으로서 독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광주 초·중·고 142개 학교 독서교육계획을 검토한 결과, 독서를 학교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24.6%(35개교)에 불과했고 토론·글쓰기·사고력 향상 등 성과를 위한 독서 교육이 아닌, 독서 자체를 목적으로 지정한 학교도 21.6%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광주교육청이 지금껏 교육 정책의 전면에 독서정책을 내세우지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지도 않았고

독서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대신 홍보도 없었던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글자는 ‘해독’하지만 글을 ‘독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 국내 학교 독서 정책이 도서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 학교 독서 활성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이같은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이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독서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교가 함께 읽는 독서 ▲교육과정 안에 녹여둔 독서 ▲책 읽는 교사 확산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서를 교육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이어야 한다는 게 연구소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하루 종일 독서 토론·나눔 실천... 다양한 책 즐기기

학교 독서 문화 조성 프로그램

스마트폰이 익숙한 젊은 학생들을 책과 친숙하게 할 수 없을까. 매년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조성하는데 공을 들이는 학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송원여고, 하루종일 책 읽기=송원여고의 ‘하루종일 책 읽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책을 읽는 습관’을 키우기 위한 대표적 독서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9회째 열린 행사는 선·후배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신청서를 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참여도가 높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올해도 165명의 학생들이 선착순으로 참여,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독서 멘토와 모둠별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나에게 묻다’, ‘플랫랜드’, ‘수나의 수학영화관’, ‘1984’, ‘소년이 온다’, ‘처음 읽는 논어’ 등을 읽고 토론하며 하루를 보냈다.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독서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송원여고는 이외 ‘사제 동행 아침 독서’, ‘자투리



송원여고 학생들이 지난 22일 ‘하루종일 책 읽기’에 참여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송원여고 제공>

시간 독서 운동’, ‘전교생이 참여하는 밋고들 독서 마라톤’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펼쳐 학생·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대, ‘서(書)로~’ 캠페인=광주대는 올 해부터 ‘서(書)로 만남’, ‘서(書)로 동행’, ‘서(書)로 나눔’ 등의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서(書)로 만남’은 학생들이 매주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만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펼치도록 해 학생들의 독서력과 토론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5개 독서클럽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교 도서관측은 장학 마일리지 혜택과 회의실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書)로 나눔’ 활동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들에게 기증받은 책을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 전달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도서 배달서비스인 ‘서(書)로 동행’도 눈길을 끈다.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학교측이 직접 강의실 등으로 찾아가 전달해주는 서비스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신대 ‘지역과 함께 30년’

토론회·행사 강연·전시회 등 개교 30주년 행사 다채

동신대가 개교 30주년을 맞았다. ‘지역 대학’임을 자임하는 동신대가 개교 30돌을 맞아 내놓은 기념행사 코드로 ‘지역 속으로’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이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지역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역 속으로... 발전 방안 모색=동신대 개교 30주년 기념사업단은 네 차례의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변화에 한 발짝 앞서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심포지엄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의 역할(4월 27일) ▲신재생에너지와 지역사회, 그리고 동신대(6월) ▲천년의 도시와 동신대(10월) ▲고인골(古人)로 본 마한인의 삶과 죽음(10월)이라는 주제로 마련돼 지역의 실정을 진단하고 미래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학교측은 기대하고 있다.

‘좋은 인성’을 바탕으로 실용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맞춘 인성교육 심포지엄(11월 24일)도 마련된다.

◇지역민과 함께-문화 행사 풍성=지역민들이 동신대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풍성한 문화 행사도 마련됐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삶의 경험을 듣는 30인 릴레이특강은 지난해부터 지속되면서 입소문이 났다. 올해도 ‘미생’의 윤태호 작가를 비롯, 거부 아이론 가수 선이 동신대를 찾았고 5월에는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

서관(10일), ‘자존감수업’ 윤홍균 박사(18일), ‘지역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작가 서사장(31일) 등도 지역을 찾는다.

지역민들이 참여, 함께하는 의미를 되돌아보는 ‘투게더 합창·합주 경연대회’가 오는 25일 열리고 개교 당시인 30년 전 추억의 음악을 듣는 자리인 ‘응답하라 1987’ 사복음악회는 28일 오후 동신대 대정광장에서 열린다.

함신의 오케스트라의 음악트럭 연주회도 다음달 30일 학교에서 열린다.

동신대를 찾다보면 눈이 즐거운 전시회도 만나볼 수 있다. ‘남도예술 100선’이라는 명칭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학교 중앙도서관 문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강운, 박동신, 박상화, 설 박, 송필용, 우재길, 윤세영, 이준필, 한희원, 황영성 등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오는 28일까지 나주 고분전시관에서 열리는 ‘응답하라 나주 1970’ 특별사진전은 동신대가 위치한 30년 전인 1960~1970년대 나주시 기록 사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동신대는 이외 지역 소외계층 등을 찾아 정기적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벽화 그리기, 집 고쳐주기, 운동처방치로 봉사활동 등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동신대는 고 이상우 박사가 지난 1987년 동신공과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19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명문사학으로 성장해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동신대, 산업계 평가 최우수

전남대·조선대·동신대가 산업계가 추진한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다. 대학 교육 과정이 산업계 요구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 기업들이 스스로 따져보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 5단체는 이들 대학 졸업생이 입사지원할 경우 회원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권고한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목포대와 호남대는 평가에 참여했지만 최우수 평가를 받지 못했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67개 대학 166개 학과를 대상으로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를 실시한 결과, 5개 분야 54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중복 대학을 제외하면 39개 대학이 뽑혔다.

교육부는 건축·토목·기계·자동차·조선해양 등 5개 분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가운데 참

여를 희망한 67개 대학(166개 학과)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배출 인재들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산업계 부서장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삼성물산·건화·에프엠솔루션·현대자동차·대우조선해양 등 모두 30개 기업 임직원이 평가에 참여했고, 2991개 기업에 설문지를 돌려 응답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건축부문의 경우 전남대 등 20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에 뽑혔고 토목 부문에서는 동신대 등 11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대는 기계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조선대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임야 ◆ 삽니다

신속 / 당일처리!
(주)오천개발
H. 010-3605-5000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500만원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H. 010-8902-79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60~100 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H.010-3605-5000

**오천
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상담예약 필수!

담당 최 선 규
H. 010-3605-5000